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자원봉사활동 분야 및 신뢰대상별 차이를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송재영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자원봉사활동 분야 및 신뢰대상별 차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수 영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송 재 영

송재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위원장 김 병 섭 (인)

부위원장 김 순 은 (인)

위원 이 수 영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참여분야 및 신뢰대상별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onal democracy)의 핵심은 시민 스스로가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관한 공공재 모형(public good model)에 의하면 봉사활동의 주체인 개인은 직·간접적인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동기 외에 자신을 포함해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도 있다. 신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을 취할 때 국가는 정책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신뢰라는 공공재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만약 신뢰대상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다르다면, 각각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하는 효율적인 접근법 또한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가족, 이웃,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차별적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다.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을 참여분야별로 구분하였고, 신뢰를 가족, 이웃, 공공기관으로 대상별로 구분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하위의 신뢰지수로 포괄할 수 있는 종합신뢰지수를 도출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일상적 자원봉사로 패러다임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모색한다면 정책목적에 맞는 신뢰의 향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자원봉사활동, 신뢰, 사회적 자본

학 번: 2015-24484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
1. 연구의 대상	4
2. 연구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신뢰에 관한 논의	6
1. 신뢰의 개념	6
2. 신뢰의 분류	8
3. 사회자본이론과 신뢰	9
4.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제 2 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논의	16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16
2. 자원봉사활동의 분야	18
3.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 관한 논의	19
4.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에 관한 논의	21
제 3 절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논의	22
1.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22
2.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6
3. 선행연구의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8
4. 연구의 가설	32

제 3 장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36
제 1 절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36
1. 연구의 분석틀	36
2. 연구모형	37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37
제 2 절 분석의 자료 및 변수의 정의	38
1. 분석의 자료 :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38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9
제 4 장 분석 결과 및 해석	43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43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43
2. 주요 변수의 응답자 유형별 측정결과	49
제 2 절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	52
1. 상관관계 분석	52
2. 회귀분석 결과	55
제 5 장 결론	6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8
제 2 절 연구의 한계	71
참고문헌	73

표 목 차

[표 1] 1회 이상 참여한 응답자 수	34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3
[표 3] 종속 ·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45
[표 4] 하위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46
[표 5]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47
[표 6] 응답자 유형별 신뢰지수	49
[표 7] 응답자 유형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51
[표 8] 분산팽창지수(VIF)	55
[표 9] 회귀분석 결과 (종합신뢰지수)	56
[표 10] 회귀분석 결과 (가족신뢰지수)	59
[표 11] 회귀분석 결과 (이웃신뢰지수)	62
[표 12] 회귀분석 결과 (공공기관신뢰지수)	65

그림 목 차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36
------------------------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정된 정부 예산과 다변화된 국민들의 수요로 인해 정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출현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2011)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시간’ 기여 가치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기부(giving)에 의한 금전적 가치보다 적어도 50% 이상으로 추산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 10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원봉사활동 진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참여의 대표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나눔 문화의 기초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기부와 이웃돕기에 동시에 참여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cqueville은 시민이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 형성의 결정요인이라 보았으며, Putnam과 Fukuyama는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도출했다. 특히 Putnam(1993)은 시민의 사회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를 구축하고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에서 나

아가 시민들 사이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이론에 따르면 신뢰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행위자 개인을 넘어 조직과 사회로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며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자원봉사는 신뢰로 구축되는 시민의 자율적인 공론의 장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므로 시민사회의 건설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 참여와 협력 · 신뢰받는 정부’를 3대 전략 및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으로 정부 운영을 전환한다고 밝혀 국민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5~29세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를 신뢰하느냐?(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은 “신뢰한다(Yes)”는 응답이 2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6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1위인 스위스의 경우 “신뢰한다(Yes)”는 응답이 80%를 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¹⁾ ‘저신뢰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신뢰 생산자로서 시민의 자발적 역할과 협조가 필요하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사회(aged society)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는 사회

1) 2017년 8월 12일(현지시간) OECD 공식 페이스북(facebook) 게시물 (Source: Gallup World Poll)

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노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지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과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층의 교육과정 중 비자발적·의무적 참여, 중년 여성의 시간적 여유 혹은 온정적 성향에 의해 유발되는 등 특정한 소수만의 관심영역으로 여겨진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현실에 따라, 양질의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가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활성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라는 과제 달성에서 필요로 하는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연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은 이를 실현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참여 형태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은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생산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원봉사활동 환경이 성숙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봉사대상자를 위한다(for)는 개념보다는 대상자와 함께(with)하는 협동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시민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공공성과 상호호혜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일상적 자원봉사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의 실효적인 구축과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이 신뢰의 증대를 통해 ‘저신뢰 국가’의 오명을 벗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신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을 취

할 때 국가는 정책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신뢰라는 공공재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무형의 가치로서 사회적 자본이 기능하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뢰의 대상이나 영역, 기능마다 특히 적합하거나 효율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효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참여분야 및 신뢰대상별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한다. 대상으로 구분한 신뢰의 종류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다르다면, 각각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하는 효율적인 접근법 또한 다를 것이다. 만약 연구 결과 자원봉사활동 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검증될 경우, 향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할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의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일반 주민’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

함에 따라 2017년으로 설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을 위해서는 양자 간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다방면의 지표를 포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이 갖는 신뢰 수준을 측정할 다방면의 지표를 포괄한 전국단위의 설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5이 거주 중인 서울특별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 구성으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보하고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서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는 연구 자료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변수를 도출하고 가설을 수립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분야별, 신뢰 상대방인 신뢰 대상에 따른 신뢰의 종류별로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종속변수는 종합신뢰지수,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이다. 종합신뢰지수는 가족 · 이웃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종합해서 산출한 지수이다. 통제변수는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을 수립한 후 기술 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거쳐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참여분야별, 각 지수로 구분된 신뢰대상별로 분석한다. 이 후 분석의 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검토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신뢰에 관한 논의

1. 신뢰의 개념

신뢰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가변적인 성향을 보이며 학문상 정의가 일관되지 않다. 일반적으로 신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인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본다(강여진·박천오, 2003). 신뢰의 사전적 정의가 ‘굳게 믿고 의지함’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란 개념상 신뢰 대상을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신뢰는 관계 형성 및 유지, 구성원 통합 등을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수의 학문분야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인류학에서는 신뢰를 구성원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호호혜성의 규범적 기준으로 본다(김미진, 2012). 사회학에서는 신뢰를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Lewis & Weiger, 1985). 경제학에서의 신뢰는 합리적 선택 메커니즘으로 이해되는데,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을 통제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Williamson, 1985). 다수의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인 동시에 개념적 합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뢰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Putnam은 신뢰를 독립적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수반하는 것(Trust entails a prediction about the behavior of an independent actor)으로 정의했다. 또한 신뢰를

의도를 가진 타인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심리상태로 보기도 한다(Rousseau et al., 1998). Hardin은 신뢰를 신뢰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신뢰주체의 심리상태로 보면서 신뢰의 주체, 대상, 근거를 구성요소로 도식화 할 수 있는 체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Hardin, 1990). Fukuyama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따라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협력할 것에 대한 기대’로 신뢰를 정의했다. 이러한 신뢰는 조직운영 및 업무의 성취에 유효한 역할을 하며 구성원의 통합을 촉진하는 접착제로 기능하게 된다(Fukuyama, 1999).

Coleman(1990)은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사회구성원들 간의 행위에 대한 신뢰는 곧 사회적 자본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김영준, 2016). Fukuyama는 신뢰를 사회적 자본 자체로 보기도 하고,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 보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신뢰는 그 수준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하며, 기업 · 산업 · 지역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Fukuyama, 1995). 이처럼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거론되거나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보기도 하며(Paldam and Svendsen, 2002; Fukuyama, 1995; Putnam, 1995),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규범, 네트워크 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도 본다(이재열, 1998).

신뢰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관계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규범적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며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기도 한다(김미진, 2012). 신뢰에 관한 정의를 종합하면, 신뢰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예측을 수반하는 것이며(Putnam, 1993; Fukuyama, 1995; Rousseau et al, 1988), 신뢰 주체의 주관적인 심리에 관한 것이다(Hardin,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신뢰를 ‘개인이 특정적 · 일반적 · 제도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 행동 · 보상 · 협력

을 기대하는 주관적 심리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신뢰의 분류

신뢰를 분류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원의 틀이 존재한다. 신뢰대상은 개인, 조직, 체제, 사회 등 다양한 차원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신뢰의 다차원성이라고 한다(원숙연, 2002). 다차원적 속성에 따라 신뢰를 대인간 신뢰와 제도적 신뢰로 분류할 수 있고, 조직에 대한 신뢰 · 상사에 대한 신뢰 · 동료에 대한 신뢰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강여진·박천오, 2003).

다수의 연구가 신뢰의 정의와 함께 신뢰 상대방인 대상을 필수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Fox, 1974; putnam, 1993; Fukuyama, 1995; Hardin, 1998; Ostrom & Walker, 2003). Fox(1974)는 신뢰를 신뢰대상을 기준으로 수직적 신뢰(vertical trust), 수평적 신뢰(lateral trust),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로 분류한다. Hardin(1998)과 Ostrom & Walker(2003)은 신뢰 대상을 개인적(Particularized), 일반적(generalized), 제도적(institutional)인 것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 체계에 따를 때, 가까운 관계에 대한 특정적 신뢰 외에도 이웃을 포함한 사회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가구원용)의 7번의 신뢰 문항은 응답자가 각각의 신뢰 대상에 대해 갖는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자 1) 가족 2) 이웃 3) 공공기관(서울시 등)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신뢰는 사회적 자본 그 자체와 혼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 때의 신뢰는 특정적(particularized) 신뢰 혹은 사적(personalized) 신뢰와 구분되는 일반적(generalized) 신뢰 또는 사회적(social) 신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신뢰의 대상에 따라 특정적(Particularized), 일반적(generalized), 제도적(institutional) 신뢰로 분류한 Hardin(1998)과 Ostrom & Walker(2003)의 기준을 채택해 응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특정적(particularized) 신뢰를 개인이 직접적 · 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 중 ‘가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이웃 일반에 대한 신뢰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며,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문항 7번(가구원용) 신뢰 문항 중 1) 가족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신뢰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적(generalized) 신뢰는 본 연구에서 가족을 제외한 ‘이웃 일반’에 대한 신뢰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웃에 대한 신뢰란 특정 이웃이 아닌 지역 공동체 내부인 대해 거리, 안면과 친분의 정도, 연관 수준, 이해관계 등을 막론하고 평균적인 선호를 반영한 이웃에 대한 신뢰 감정을 의미한다. 이는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문항 7번(가구원용) 신뢰 문항 중 2) 이웃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도적(institutional) 신뢰는 정부 신뢰 중에서도 공공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로 축소하여 측정한다(Mishler & Rose, 1997). 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적 영역의 신뢰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업, 노조 등 공식적인 제도들의 투명성, 능력, 청렴 등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안소영, 2017) 정부신뢰는 명확한 합의가 쉽지 않은 개념으로,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강민성,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도적 신뢰를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문항 7번(가구원용)의 신뢰 문항 중 2) 공공기관(서울시 등)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3. 사회자본이론과 신뢰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학문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사회

적 자본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연구자들의 견해와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신뢰의 개념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신뢰의 관계를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Coleman(1988)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을 협력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경제적 거래를 위한 사회구조적 측면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정의한 것으로, 전통적 자본의 부존량이 비슷한 국가들이라 해도 협력을 촉진하는 무형자산 스톡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면하는 거래비용과 위험의 수준 또한 다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력의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Coleman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생산력 확대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체의 사회관계적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우철, 2014)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을 ‘관계의 지속적 네트워크에 소속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획득하게 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사회적 관계망의 산물’로 보았다. 의도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구적인 성격을 갖는다(류석춘 외, 2003; 최은숙, 2012) Fukuyama(1995)는 특히 신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신뢰는 지역사회가 일정한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 토양 위에서 배양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적 특성으로서 사회 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일체의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신뢰의 개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일부의 경우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김우철, 2014). 사회적 자본과 혼용되어 거론되거나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보기도 하며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규범, 네트워크 등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을 신뢰와 협력과 같은 집합체로서 구성원을 결속하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s)와 같다고 표현하였으며, 사회 구성원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단체에 자발적인 참여할 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김우철, 2014). 사회적 자본으로서 혼용되는 신뢰 개념은 신뢰의 상대방인 신뢰대상이 직접 관계를 맺은 특정 지인으로 한정되는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 혹은 사적 신뢰(personalized trust)와는 구분하여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 또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라고도 한다(김우철, 2014).

사회적 신뢰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의 개념을 곧 신뢰로 규정하거나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신뢰를 선택적으로 강조한 다수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김왕배(2002)는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감시비용과 통제비용을 절감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숙종 외(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참여와 네트워크 등 사회적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로서 규정하여 그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학문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불명확하고 산출하는 부가가치 또한 모호한 동시에 실제 측정하기가 어려워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구성개념의 모호성이 사회자본이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강민성, 2015). Fine(2001)은 개념상 사회적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경제적 요소인 ‘자본(capital)’이 ‘사회적(social)’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형용모순(oxymoron)이라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사회적 자본을 폐기해야 할 개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모호성과 관련하여 Fine(2001)은 기존의 사회학적 지식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의 이론을 차용한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

어 칭한 것에 불과한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추정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실증연구는 주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와 같은 핵심요소를 위주로 단순화된 설문을 통해 진행되는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변수 자체의 실질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은 사회적 자본이 학문적 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가 사회적 결속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이자 혼용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종속변수를 사회적 자본인 신뢰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비판의 입장까지 종합할 때 특히 사회적 자본 개념 자체는 단독해서 실질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핵심요소이자 혼용 가능한 개념인 신뢰를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7번 문항(가구원용)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해 종속변수로서 활용한다. 또한 사회신뢰(social trust)와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로 나누어 개별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강민성(2015)의 연구를 참고하고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7번 문항(가구원용)의 구성을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도 혼재된 개념의 신뢰가 아닌 가족, 이웃,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를 도출해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위의 세 가지 신뢰를 합산한 후 평균을 도출한 값을 ‘종합신뢰지수’로 설정하고 보다 종합적인 신뢰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4.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데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크게 개인적 측면, 환경적 혹은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주관적·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신뢰 결정요인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개인적 요인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1) 개인적 측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마다 혹은 국가별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이재혁, 2006). 대다수의 연구에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해 신뢰와의 관계를 연구하지만 이러한 요인 역시 연구자마다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자원봉사 활동과 신뢰, 인구사회학적 관계가 문화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최은숙, 2012).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았다. 반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성, 연령, 교육, 소득수준별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남녀 차이는 없고, 연령별·교육수준별·소득수준별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신뢰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계층별 차이가 미미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비자원봉사자와 비교해 자원봉사활동 경험자가 타인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은 성향적으로 타인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것인 것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또는 효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다.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원봉사자가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는 신뢰의 상대방이 되는 대상 기관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 정권의 교체나 정치적 이슈 또는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와는 달리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청년층보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고학력층보다 저학력층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7).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Hetherington(1998)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기의 신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과 성별은 정치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교육수준과 인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의회에 대한 신뢰는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ishler & Rose(2001)의 연구는 교육수준, 나이, 성별 등의 특성보다 개인의 실업에 대한 경험과 소득수준이 제도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ocquevill(1969), Putnam(1993), Coleman(1990)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경험은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성별의 영향과 관련하여 유재원(2000)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단체 참여가 활발하고, 이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의 단체 내 연계망이 크고 단체에 대한 신뢰도 높을 것으로 보았다. 박희봉·이희창·조연성(2003)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이재혁(2006)의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학력이 제도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개인의 인식적 측면에서 안소영(2017)은 자율성, 사회적 가치, 정치적 관심, 사회참여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특성이 아니라 선진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율성, 사회적 가치, 사회참여의 경험이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낮고,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솔비(2018)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신뢰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혈연, 지연 등에 기반을 둔 특정적 대인 신뢰와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 역시 정부 신뢰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대상별로 구분된 신뢰 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김솔비, 2018).

2) 사회적 측면

Putnam(1993)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자발적 단체 활동을 통해 서로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Putnam(1993), Brehm & Rahn(1997)은 기부와 자원봉사는 사회활동으로서 신뢰를 구축하게 하고 사람들을 지역사회 혹은 사회기관들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순환적이고 쌍방적인 관계가 양자 간에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Rothstein(2000)은 법에 의한 지배(the rule of law)로 법질서의 준수 및 타인에 대한 신뢰로 위험비용이 줄어들면 사회적 신뢰수준이 제고된다고 보았다. 개인수준의 미시적 차원에서 신뢰의 형성을 연구한 Putnam(2000)은 TV 시청시간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세대교체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자발적 단체 활동이 감소한 것이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킨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Putnam(2000)은 사회자본과 행복의 관계를 논한 연구를 통해 아동복지, 범죄율, 건강, 탈세, 관용, 경제적 형평성, 시민 형평성과 같은 지표들이 주관적 행복과 정(+)의 관계에 있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과도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강민성, 2015).

국내의 연구 중 조중권(2010)은 사회적 자본을 공적 신뢰 형성에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증대와 시민 간의 소통, 시민단체를 매개로 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간의 연결망이 강화되어야 사회적 자본 및 공적 신뢰가 증진된다는 결론을 도출

했다. 한상일(2008)은 공동체 참여도를 사회적 자본 측정의 지표로 규정한 연구에서, 공동체 내의 복합적인 상호교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동체 참여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지역의 사회적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지역 내 사회적 다양성은 개인의 사회적 신뢰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다. 따라서 일관적인 경향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나, 사회적 다양성의 수준의 높을수록 신뢰 수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결론이 다수에 가깝다(조민지, 2016) 대표적인 연구로서 Putnam(2007)은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하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 내의 타인까지 덜 신뢰하게 되므로 사회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또한 Bjørnskov(2007)와 Dinesen et al.(2012)은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는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조민지(2016)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거주지역 내의 소득다양성이 개인의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영향의 결론을 도출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타인 및 집단과 교류가 증가하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그 결과 사회적 신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조민지, 2016).

제 2 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논의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제1항은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기본방향을 명시한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현외성(1997)은 자원봉사를 ‘타인과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여 물질적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으로 정의한다. 조휘일(1999)은 개인이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해 자발적인 선택으로, 강제성 및 경제적 보상은 배제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박춘희(2015)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강조하며, 공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행동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Ellis & Noyes(1990)는 ①자발적 선택, ②사회적 책임, ③금전적 이익 배제(without monetary profit), ④기본적 의무의 초월(beyond basic obligations)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자원봉사활동을 정의한다. 기본적 의무를 초월한다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행위, 직장에서의 활동과 같은 기본적 의무 차원이 아닌 행위일 때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에 포괄된다는 의미이다(정호영, 2003).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리하면, 자원봉사는 대체로 공익성, 자발성, 무보수성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다(조휘일, 2001; 김영호, 2003; 김성용, 2006; 김태룡·안희정, 2009).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서도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기본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태룡·안희정(2011)의 연구는 자원봉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①자발성, ②무보수성, ③공익성, ④이타성, ⑤사회복지성, ⑥무보수성, ⑦자아실현성, ⑧지속성, ⑩학습성, ⑪헌신성, ⑫협동성 등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발성이란 봉사자가 자기의지로 참여를 결정할 것을 의미하고, 이타성·공익성·사회복지성은 같은 목적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봉사활동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 공익, 사회복지의 측면

에서 이익이 될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김태룡·안희정, 2011). 또한 봉사활동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유일한 보상은 자기만족감이며, 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유지되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김태룡·안희정, 201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이 내포하는 이타성 · 공익성 · 사회복지성의 특징은 자원봉사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적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자의 자발적 행위의 결과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자신과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이상욱, 2008),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고, 사회적 통합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이금룡 외, 2009).

2. 자원봉사활동의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분류한 경우가 가장 많다(정지훈, 2017).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수혜 대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인 경우로, 각 대상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상담, 심리적 지지, 교육 · 여가선용 · 사회활동 지도,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생활안정, 캠페인 등이 있다(김익균 외, 2013; 정지훈, 2017).

다만 대상에 따라 목적 및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아동 분야의 자원봉사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아동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올바르게 성장해 차후 각종 질병 및 비행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있다(김동배 외, 2009). 반면 청소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분야는 청소년의 자립기능 향상과 사회적 지지에 목적이 있고, 노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은 직접대인서비스에 주력해 자립기능을 도모하는 것에 주력한다는 차이가 있다(김익균 외 2013; 정지훈, 2017).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 환경보전, 교통개선, 스포츠·취미, 문화, 정치, 범죄, 경제, 행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규정하는데, 양자의 유형을 비교하면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육, 교통질서, 재해대책, 문화진흥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형규, 2018).

3.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에 관한 연구

OECD는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친사회적 행태(prosocial behavior)’를 사회통합의 주요 지표로 보며 회원국의 ‘친사회적 행태 지수’를 2011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국민소득 수준이나 인간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자원봉사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개발 수준이란 국민소득, 평균수명, 교육수학 등을 포괄한 인적 자본 지표이다(행정안전부, 2017). 또한 건강상태 및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한국은 양호한 건강상태 비율과 주관적인 생활만족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나눔지수가 높은 예외적인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ECD, 2015).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학력, 종교 등 개인의 특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의미한다. 김성준(2004)은 개인적 특성 변수들을 설정한 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고용상태, 결혼상태, 교육수준, 인종, 고용상태 등이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진(2006)의 연구에서도 연령, 성별, 종교, 교육수준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요인으로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현·권희경(2014)이 경상남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 종교, 성적, 부모의 학력 · 직업 · 소득 등의 개인 특성과 청소년의 봉사활동 태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종교,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도 연령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연구의 인적 범위를 특정 연령층으로 설정한 연구가 많다. 조희일(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되는 시기로서 성인 초기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낮고 중년기에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erzog et al, 1989). 반면 김성경(2009)의 연구에서는 나이라는 특성이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봉사활동 참여가 높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이란희, 2015; 김성경, 2009). 다만, 성별에 따른 효과는 생애주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성별은 앞서 언급한 연령과 복합적으로 분석할 때 더욱 정확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원(1997)이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을 인적 범위로 진행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달리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관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성별과 연령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때 성별에 따른 효과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 중 성별과 연령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층에서는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더 많지만 노년층은 반대로 남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이 더 많다는 결과가 있다(Gallagher, 1994). 다만 이것

은 국외 연구의 결과이고 국내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여성들임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자원봉사의 결과 참여한 봉사자 본인 혹은 봉사자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사회 등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는 1) 개인적 차원의 효과와 2) 조직 및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1) 개인적 차원의 효과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차원의 효과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봉사자가 타인과의 접촉 결과로 사회화, 개인적 성장, 건강, 삶의 질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자 개인에게 도덕적·사회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현외성, 2017),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육진, 2015).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김육진, 2015).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봉사 경험을 통해 인격 발달, 잠재력 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회성 함양,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원혁, 2016).

일부 연령대를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차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사회적 필요성을 자각하게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이동원 외, 1998; 김창석·최수일, 2012). 청소년층의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도 더 잘하고, 리더십생활기술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박재희,

2013; 김완수, 2018).

2) 조직 및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최종덕, 2007; 김태홍 외, 2007; 이선미, 2008; 이희태,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덕(2007)은 자원봉사활동을 시민교육 방법의 일종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고, 이희태(2012)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함의로 도출했다. 이현기(2009)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된 사회는 세대 간의 응집력과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적 범위를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적 차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의 결과로 개인, 기업, 지역사회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효진, 2005; 최상철, 2010; 김미진, 2012).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은 타인과의 접촉 결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김효진, 2005),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최상철, 2010)가 있다. 또한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미진(2012)은 기업 구성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제 3 절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시간기부에 해당하는 자원봉사활동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공공재 모형(public good model)’은 합리적 경제주체인 개인이 타인을 위

해 자신의 물질·인적자본을 소비하는 동기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개인의 자선적 행위는 직·간접적인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동기 외에도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리를 높여주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보다 많이 공급하려는 목적에서 발현될 수도 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자발적인 자선적 행위를 하면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진 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어 이는 궁극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구성원의 복리까지 증진하게 된다는 것이다(박태규 외, 2003). 한편 다수의 사회적 자본 이론들에서 논의된 사회적 자본 혹은 신뢰의 개념과 기능을 종합할 때, 개인의 행위 결과 신뢰가 형성된다면 그 혜택은 행위자인 특정 개인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 전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의 공공재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적 모형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기꺼이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투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동기로 작동하는 공공재에 신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긍정적인 관계는 공공선을 지향하며 지역에 기반을 둔 결사체를 가장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시민 결사체(pluralistic civic association)’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원주의적 시민 결사체는 공동체주의, 시민사회론, 사회자본론, 결사체주의 등 다양한 범주로 발전되어 온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onal democracy)의 이론이다(정상호, 2006). 같은 맥락에서 가족, 이웃, 특히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 등이 결사체 민주주의 이론에 포함된다. 특히 다원주의적 맥락에서 오늘날 네오 토크빌주의자(neo-tocquevillan)들은 시민 결사체의 기능을 사회적 자본(Coleman, 1998; Putnam, 1993; Fukuyama, 1995)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리하고 있다(임혁백·장주영, 2010).

자유 다원주의(liberal pluralist)에 사상적 기반을 둔 결사체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를 강조한 A. Tocqueville로 대표되는 결사체 사상으로 발전했다. Tocqueville은 미국인들이 지역 내에서의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치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발견했다. 사회자본과 민주주의의 관계와 관련하여 Tocqueville(1996)은 미국의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이 민주주의 형성의 결정요인이라 보았으며, Putnam(1995)과 Fukuyama(1995)는 이를 발전시켜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공헌하였다(강민성, 2015). Tocqueville의 영향을 받은 연구가들은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참여를 통해 동료시민들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적 태도를 기를 수 있고 이는 공적협동의 성향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Almond & Verba, 1963).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일 가능성은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관련된 이론에서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의 관점을 취하면 자원봉사활동 분야마다 충족되는 욕구 단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신뢰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생리적 · 안전 · 사회적 · 존경 · 자아실현의 욕구가 위계적으로 존재한다. 환경보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자녀교육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재난재해 분야, 국제사회 분야 등 각 활동의 특성 차이로 인해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의 단계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은 자발적 재능기부의 과정에서 존경의 욕구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재난재해 분야 봉사활동은 위기 상황에서 타인과 협동하면서 안전욕구 혹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일 수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 분야마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욕구의 차이 및 충족의 여부가 개인의 신뢰수준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Vroom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의 관점에 따르면 봉사활동 분야마다 당해 활동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활동 결과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의 차이로 말미암아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신뢰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동기부여는 당해 행위의 결과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에 의해 유발되는데 구체적으로 유의성(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Expectancy)에 의해 결정된다(김성준, 2003).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분야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기대의 성취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차별적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문화적 토대로 본 Putnam(1993)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호혜성(reciprocity), 네트워크는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즉 사회단체 참여 네트워크는 호혜성의 규범을 증진시키며, 신뢰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활동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해답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Putnam(1993)은 사회자본은 정부제도의 안정과 경제 발전, 부패 감소, 청소년 범죄, 이혼율, 미혼모, 학교자퇴 등의 여러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최은숙, 2012). 결사체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자본이 기능하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뢰가 발현되는 대상이나 영역, 기능마다 특히 적합하거나 신뢰의 형성에 효율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효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OECD(2015)가 회원국의 친사회적 행태지수를 비교해 발표한 내용을 담은 「Society at a Glance」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신뢰도와 자원봉사는 국가 차원에서 밀접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7). 2014-2015년 통계를 분석한 해당 자료에서 한국은 전체 34개국의 정부 신뢰 평균이 43%인 것과 비교해 28%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2017년 조사에서 정부 신뢰도가 56%로 급증했는데 이는 정권 교체와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면, 사회적 자본의 필수적 요소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 또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와 신뢰 혹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안병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사회참여의 기회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은서(2015)의 연구가 있다. 양은서(2015)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기간이 길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정도가 클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지훈(2017)의 연구에서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연구는 연령대가 아닌 청년층이라는 키워드를 전면 사용한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정지훈(2017)은 취업준비라는 과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활동 참여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취업여부, 군복무 여부, SNS 일일 접속 빈도 등이 자원봉사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업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존재한다. 김미진(2012)은 서울시내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자원봉사 참여자 개인이 가지는 특성이 신뢰수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직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와 가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진, 2012).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같이 독립변수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공고화, 축적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축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김태홍 외, 2007; 이선미, 2008). 또한 사회적 자본 측정 과정에서 요소로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기도 한다(김태홍 외, 2007; Knack, 2002).

변수 간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 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이희태(2012)는 자원봉사활동을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증대 방안으로써 제시했다. 최종덕(2007)의 연구는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은 시민교육 방법의 일종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학습을 전개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함의를 도출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진관훈(2012)은 제주도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된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증대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지역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구축 정도도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송건섭(2009)의 연구도 있다. 자원봉사 활동을 지역사회 참여 수단의 일종으로 보고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간주한다면 해당 연구 또한 자원봉사가 신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중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 중 어느 것을 선행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유종용, 2012). 본 연구와 반대로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제시한 연구는 사회자본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태룡·안희정(2009)은 자원봉사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자본의 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유종용(2012)은 중·고령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자본이 무형의 근원적 동기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사회자본 중 신뢰(개인신뢰 및 기관신뢰)는 자원봉사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연구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특정 사회문제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유종용, 2012).

2. 선행연구의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종합

앞서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신뢰에 관한 연구는 크게 ①신뢰의 개념 또는 사회자본과 신뢰의 효과에 관한 연구, ②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있다. 신뢰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개인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실업경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논의가 있고(Hetherington, 1998; Mishler·Rose, 2001; 박희봉 외, 2003; 이재혁,

2006), 개인의 인식적 측면에 관한 연구도 있다(안소영, 2017; 김솔비, 2018). 또한 일국의 물적·인적 자원 수준, 사회적 자본 수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시민 간 소통, 지역 내 다양성 등 사회적 측면의 요인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OECD, 2015; Putnam, 2007; Bjørnskov, 2007; Dinesen et al., 2012; 한상일, 2008; 조중권, 2010; 조민지, 2017).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①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와 ②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결과에 관한 연구가 주된 경향을 이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는 특히 참여의 동기에 관한 연구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Herzog et al, 1989; 조휘일, 1991; Gallagher, 1994; 김기원, 1997; 김성준, 2004; 홍은진, 2006; 김성경, 2009; 김보현·권희경, 2014; 이란희, 2015). 자원봉사활동의 결과에 관한 연구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 본인 혹은 봉사자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사회 등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란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자의 개인적 성장, 정신적 건강, 사회성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을 의미한다(이동원 외, 1998; 김창석·최수일, 2012; 박재희, 2013; 김육진, 2015; 현외성, 2017; 김완수, 2018). 자원봉사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조직 및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에 관해서는 사회적 자본 축적,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의 수단, 시민교육의 수단 등을 제시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최종덕, 2007; 김태홍 외, 2007; 이선미, 2008, 최상철, 2010; 이희태, 2012).

한편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봉사자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서의 신뢰 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양자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밝힌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김태홍 외, 2007; 이선미, 2008; 안병일, 2009; 양은

서, 김미진, 2012; 정지훈, 2017).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이 신뢰 및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지방정부와 경쟁력 강화, 시민교육을 위한 정책수단,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할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함의로 도출한 연구도 있다(최종덕, 2007; 송건섭, 2009; 이희태, 2012; 진관훈, 2012).

그러나 봉사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지 여부를 넘어서 참여하는 분야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분류하고 각각이 신뢰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신뢰는 대체로 일반적 신뢰, 사회 신뢰, 정부 신뢰 등 특정 개념의 신뢰만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신뢰를 신뢰 대상에 따라 분류한 후 자원봉사활동 참여로부터 유발되는 각 신뢰 간의 차별적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개인의 신뢰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의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한다. 연구 자료인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특별시가 정책추진과 시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생성한 통계자료이다. 가구원용 자료의 경우 2017년 9월 한 달 동안 실시된 조사에서 최종 추출된 42,687명을 표본으로 한다. 또한 가구원 데이터는 95% 신뢰수준에서 $\pm 0.46\%$ p의 표본오차를 보인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신뢰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중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내 기업 구성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177부의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존재

하나, 본 연구는 15세 이상의 서울 시민으로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가구원 42,687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연구의 기초로 한다. 따라서 일반화 가능성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고 연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원봉사활동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마다 응답자들의 주된 참여 분야의 분포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그 결과를 일괄하여 분류하고 비교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중에는 신뢰와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분야에서 활동한 응답자가 많이 분포된 연구도 있고 신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낮은 분야에서 활동한 응답자가 많이 분포된 연구도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이에 자원봉사활동을 단순히 참여여부나 분야를 일괄하여 조사하지 않고 분야를 세분화하고 참여횟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면 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영향을 분석할 때 참여분야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참여분야별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자원봉사 활동 문항은 자원봉사의 하위분야를 환경보전, 자녀교육, 취약계층지원, 문화예술로 구분하여 각각의 참여정도를 척도없이 대답하도록 질문하였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을 구체적 활동 분야(환경보전, 사회적 약자, 문화예술, 재난재해, 자녀교육, 국제사회)별로 나누어 신뢰지수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종속변수인 신뢰를 신뢰대상(가족, 이웃, 공공기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신뢰를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각각의 신뢰 증진에 보다 적

합하고 유효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알 수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 및 신뢰 증진 정책을 수립할 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주체가 갖는 신뢰의 정도가 신뢰 상대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신뢰는 특성상 신뢰의 대상이자 상대방을 명확히 할 때 정확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혼용되기도 하는 신뢰는 사적인 신뢰와 구분되는 사회적 의미가 필수적이므로 가족에 대한 신뢰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신뢰는 이 경우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신뢰'로 일관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없고, 응답자마다 생각하는 신뢰 대상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신뢰도 측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혹은 일반적 신뢰와 구분해 신뢰를 대상(가족, 이웃, 공공기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신뢰가 독립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의 비교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신뢰의 정의에서 신뢰를 대상별로 분류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지만 실증연구에서는 단일 차원의 신뢰일반에 관한 연구나 사회신뢰, 정부신뢰와 같은 신뢰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다수 발견된다. 연구 자료인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신뢰 문항에서는 신뢰 상대방인 신뢰대상을 가족, 이웃,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응답자가 각각에 대해 갖는 신뢰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결과로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대상을 기준으로 상이한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가설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onal democracy)의 핵심은 시민 스스로가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Tocqueville(1996)은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이 민주주의 형성의 결정요인이라 보았으며, Putnam(1995)과 Fukuyama(1995)는 이를 토대로 사회

적 자본의 개념을 도출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에서 나아가 시민들 사이의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자본이론에서 논의된 견해를 종합하면 신뢰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행위자 개인을 넘어 조직과 사회로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며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관한 공공재 모형(public good model)에 의하면 봉사활동의 주체인 개인은 직·간접적인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동기 외에 자신을 포함해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도 있다. 신뢰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을 취할 때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는 국민 스스로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공공재로서의 신뢰를 생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고 그 결과 신뢰의 총량을 증대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일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종합할 때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며 이혼율, 범죄율, 청소년 범죄 등의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이 기능하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뢰가 발현되는 대상이나 영역마다 특히 적합하거나 신뢰의 증진에 효율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세분화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마다 응답자들의 주된 참여 분야의 분포가 다를 수 있고, 신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분야에서 활동한 응답자가 많이 분포된 연구도 있고,

신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낮은 분야에서 활동한 응답자가 많이 분포된 연구도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표 1] 1회 이상 참여한 응답자 수

참여 분야	응답자 수
환경보전	2,249명
사회적약자	1,976명
문화예술	911명
재난재해	524명
자녀교육	1,087명
국제사회	132명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결과를 자원봉사활동 각 분야마다 0회 응답자를 제외하고 1회 이상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를 검토한 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를 각 분야를 단순 합산한 값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사용한다면 사실상 분야별 가중치를 달리한 것으로 환경보전, 사회적 약자 분야에 치우친 결과가 도출될 것이고 재난재해나 국제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는 신뢰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자원봉사활동을 단순히 참여여부나 분야를 일괄하여 조사하지 않고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 참여횟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참여분야 및 신뢰대상별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대상으로 구분한 신뢰의 종류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다르다면, 각각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하는 효율적인 접근법 또한 다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종합신뢰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2.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가족'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가설3.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이웃'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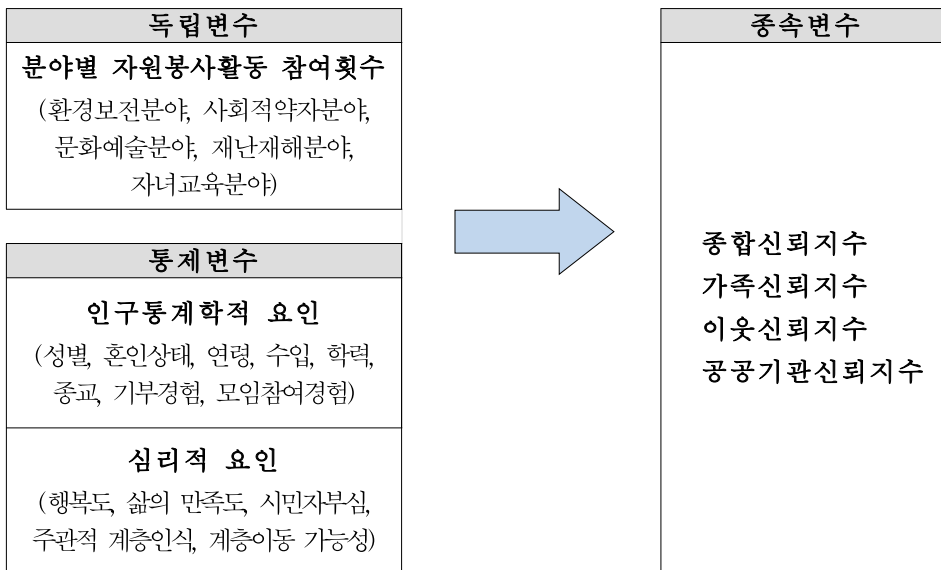
가설4.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야별 (①환경보전과 보호분야, ②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③재능 나눔 · 문화예술분야, ④재난재해 · 응급 관련 분야, ⑤자녀교육 관련 분야, ⑥국제사회 관련 분야) 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검증을 위한 독립변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종합신뢰지수와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주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의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중회귀 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의 최소자승추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text{신뢰지수} = a + \beta_1 (\text{환경보전분야 참여횟수}) + \beta_2 (\text{사회적약자분야 참여횟수}) + \beta_3 (\text{문화예술분야 참여횟수}) + \beta_4 (\text{재난재해분야 참여횟수}) + \beta_5 (\text{자녀교육분야 참여횟수}) + \beta_6 (\text{국제사회분야 참여횟수}) + \beta_7 (\text{인구통계학적 요인}) + \beta_8 (\text{심리적 요인}) + \varepsilon$$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응답자 및 주요변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수준과 종속변수인 신뢰 수준 그리고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의 자료 및 변수의 정의

1. 분석의 자료: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가 조사를 주관하고 (주)월드리서치가 조사를 실시한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생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2003년부터 매년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되는 것이다.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시책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서울시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조사의 최종적 목적으로 하며 정책추진과 시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모집단이 2017년 10월 1일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전체 세대수는 4,080,641 세대, 15세 이상 가구원은 8,648,166명으로 파악된다. 표본추출은 주민등록DB와 과세대장DB를 연계한 표본추출틀을 활용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모집단으로부터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최종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20,000가구의 42,687명이다. 해당 조사는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가구 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와 부재시 유치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가구원 데이터는 95% 신뢰수준에서 $\pm 0.46\%p$ 의 표본오차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가구원 표본의 크기인 45,609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횟수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주민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개인이 각 분야별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참여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를 독립변수로 측정하기 위해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 조사」의 가구원용 15번 문항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 각 분야별로 연간 참여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15번 자원봉사활동 문항은 각 분야별 연간 참여횟수를 요구하는데 활동분야는 1) 환경보전과 보호분야(마을청소, 쓰레기 줍기 등) 2)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3) 재능나눔, 문화예술분야(문화예술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 4) 재난재해, 응급관련 분야(재해지역 자원봉사 등) 5) 자녀교육 관련 분야(일일교수,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 6) 국제사회 관련분야(해외자원봉사 등) 7) 기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고자 ‘7) 기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①환경보전 분야 참여횟수, ②사회적 약자 분야 참여횟수, ③문화예술 분야 참여횟수, ④재난재해 분야 참여횟수, ⑤자녀교육 분야 참여횟수, ⑥국제사회 분야 참여횟수의 6가지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응답의 카테고리는 연간 참여횟수를 척도 없이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회’는 1, ‘1-2회’는 2, ‘3-4회’는 3, ‘5-9회’는 4, ‘10회 이상’은 5로 코딩하였다.

2)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신뢰지수이며 종합신뢰지수,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로 구분하였다. 신뢰지수의 측정을 위해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문항 7번 신뢰(가구원용)에 대한 대답을 활용하였다.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는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7번 문항인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설문문의 대답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신뢰를 신뢰의 상대방인 신뢰 대상에 따라 1) 가족 2) 이웃 3) 공공기관(서울시 등)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 상태를 1으로, 매우 신뢰하는 상태를 5로 설정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신뢰 대상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가 신뢰 대상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1점, 별로 신뢰 하지 않으면 2점, 보통으로 신뢰하면 3점, 약간 신뢰하면 4점, 매우 신뢰하면 5점으로 측정한 후 수치 간 비교 및 분석의 편의를 위해 1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독립변수 외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을 검토하여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특히 성별, 연령,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의 특성이 신뢰수준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청년층은 입시경쟁과 취업난, 군복무, 결혼이 당면 과제라면 장년층은 자녀교육,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노년층은 건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생애주기별로 직면하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 차등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분야별 효과 분석에서 연령을 필수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혼인여부에 따라 자녀교육 분야 봉사활동에 대한 관점이나 가정에 대한 가치관, 가족에 대한 신뢰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30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교육 분야 자원봉사활동이 여성의 행복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이형규, 2017)를 참고할 때, 현실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가정 내 역할에 차이가 있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에 느끼는 부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혼인상태와 성별 또한 통제해야 할 변수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대표적 결정요인으로서 성별, 혼인상태, 연령 등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개인이 갖는 주관적 인식의 일종인 신뢰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기에 한 개인이 지닌 기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신뢰수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감안하여 통제변수 선정에 고려하였다. 통제변수 설정에서 개인의 특성을 심리적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연구(이지은 외, 2014)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혼인상태, 연령대, 수입, 학력, 종교, 기부경험, 모임참여경험)과 심리적 요인(행복도, 삶의 만족도, 시민 자부심, 주관적 계층인식, 계층이동 가능성)을 포함해 통제변수를 설정했다.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첫째, 성별은 남성을 기준(=0)으로 하여 더미변수(dummy)로 측정하였다. 둘째, 혼인상태는 결혼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미혼·동거, 기혼·이혼·별거·사별로 분류한 후 전자를 미혼, 후자를 기혼으로 구분했다. 동거를 포함한 미혼을 기준(=0)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를 1로 측정하였다. 셋째,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를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수입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학력은 졸업상태(재학 중, 휴학, 퇴학 등)를 반영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경험한 학업 수준을 기준으로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전문대, ⑥대학, ⑦대학원으로 측정하였다. 여섯째, 종교와 기부 경험, 모임참여 경험은 ‘없음’을 기준(=0)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2) 심리적 요인

첫째, 심리적 요인 중 ‘행복도’는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서울시 주민이 자신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과의 관계, 가정생활, 학교생활 각각에 대해 행복점수를 표시한 것을 5로 나눈 평균값을 ‘행복도’로 설정했다. 둘째, ‘삶의 만족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 상태는 0점, 매우 만족한 상태는 10점입니다.”라는 문항을 통해 10점 만점으로 측정했다. 셋째, ‘시민자부심’은 “귀하는 서울시민이라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라는 문항을 통해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측정했다. 전혀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면 0점, 매우 자부심을 느끼면 10점에 해당한다. 넷째, ‘주관적 계층 인식’은 “귀하의 지위가 사회,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을 활용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주민이 인식하는 ‘계층이동 가능성’은 “우리사회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낮다, ②다소 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다소 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를 활용한 응답이며 각 선택지에 대한 응답을 각각 1부터 5까지의 값으로 코딩하였다.

제 4 장 분석 결과 및 해석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응답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비율(%)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0,349	47.7	수입	100만원 미만	1,425	3.3	
	여성	22,338	52.3		100~200만원 미만	3,546	8.3	
연령	10대	1,777	4.2		200~300만원 미만	5,419	12.7	
	20대	4,617	10.8		300~400만원 미만	7,893	18.5	
	30대	7,703	18.0		400~500만원 미만	8,728	20.4	
	40대	7,620	17.9		500만원 이상	15,676	37.7	
	50대	8,344	19.5		종교	없다	23,151	54.2
	60대이상	12,626	29.6	있다		19,536	45.8	
학력	안 받았음	224	0.5	기부	경험없다	25,726	60.3	
	초등학교	2,026	4.7		경험있다	16,961	39.7	
	중학교	3,686	8.6	봉사 활동	경험없다	37,219	87.2	
	고등학교	14,591	34.2		경험있다	5,468	12.8	
	전문대학	5,791	13.6	모임 참여	경험없다	7,379	17.3	
	대학교	15,649	36.7		경험있다	35,308	82.7	
	대학원	대학원	720	1.7	혼인 상태	미혼	9,991	23.4
						기혼	32,696	76.6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2만 가구 중 15세 이상의 가구원이고 총 표본 수는 42,487이다. 빈도분석을 통한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20,349명(47.7%), 여성 22,338명(52.3%)으로 나타났다.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표본 구성에 서울시의 인구 구성 비율을 반영하여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매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연령은 10대 1,777명(4.2%), 20대 4,617명(10.8%), 30대 7,703명(18%), 40대 7,620(17.9%), 50대 8,344명(19.5%), 60대 이상 12,626명(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30대, 40대, 50대의 경우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응답자의 연령 구성 비율은 매년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학력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안 받았음’ 응답자는 224명(0.5%), 초등학교 2,026명(4.7%), 중학교 3,686명(8.6%), 고등학교 1,4591명(34.2%), 전문대학 5,791명(13.6%), 대학교 15,649명(36.7%), 대학원 720명(1.7%)이다. 수입은 100만원 미만 1,425명(3.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546명(8.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419명(12.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893명(18.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728명(20.4%), 500만원 이상 15,676명(37.7%)로 나타났다. 혼인 비율은 미혼 9,991명(23.4%), 기혼 32,696명(76.6%)으로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는 23,151명(54.2%), 종교가 있는 응답자는 19,536(45.8%)로 무교의 비율이 더 높다. 기부 경험과 관련해서는 ‘없다’는 응답자가 25,726명(60.3%), ‘있다’는 응답자가 16,961명(39.7%)으로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봉사활동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37,219명(87.2%)으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5,468명(12.8%)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모임참여 경험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7,379명(17.3%)이 비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5,308명(82.7%)으로 더 많았다.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표 3] 종속·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종합신뢰지수	42,687	6.43	1.403	0.83	10
독립변수	환경보전분야	42,687	1.09	0.440	1	5
	사회적약자분야	42,687	1.08	0.435	1	5
	문화예술분야	42,687	1.04	0.227	1	5
	재난재해분야	42,687	1.02	0.160	1	5
	자녀교육분야	42,687	1.04	0.311	1	5
	국제사회분야	42,687	1.00	0.078	1	5

본 연구는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7번 문항(가구원용)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된 ‘종합신뢰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는 신뢰에 관한 설문 문항을 1) 가족, 2) 이웃, 3) 공공기관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종합신뢰지수로 측정하였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종합신뢰지수의 평균은 6.43점이고 표준편차는 1.403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횟수는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15번 문항(가구원용)의 1) 환경보전분야, 2) 사회적약자분야, 3) 문화예술분야, 4) 재난재해분야, 5) 자녀교육분야, 6)국제사회분야로 구분된 6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횟수는 척도 없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횟수를 0회는 1, 1-2회는 2, 3-4회는 3, 5-9회는 4, 10회 이상은 5로 코딩하였으며 각 분야별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횟수’로 표출된 자원봉사활동 각 분야별 참여의 정도가 개인의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해당 분야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0회 응답자를 포함하여 측정하였기에 관측치는 42,687로 모두 같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횟수의 평균은 환경보전 분야가

1.09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약자 분야 1.08, 문화예술분야와 자녀교육 분야 1.04, 재난재해 분야 1.02, 국제사회 분야 1.00 순으로 나타났다. 6가지 분야 모두 평균이 1에 근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표 4] 하위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가족신뢰지수	42,687	8.65	1.333	0.00	10
	이웃신뢰지수	42,687	5.47	2.116	0.00	10
	공공기관신뢰지수	42,687	5.18	2.145	0.00	10

종합신뢰지수의 하위항목으로 가족, 이웃,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각각 1) 가족신뢰지수, 2) 이웃신뢰지수, 3) 공공기관신뢰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종합신뢰지수,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한 네 번의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해당 지수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종합신뢰지수의 하위 항목인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가족신뢰지수의 평균은 8.65점이고 표준편차는 1.333, 이웃신뢰지수의 평균은 5.47점이고 표준편차는 2.114, 공공기관신뢰지수는 평균이 5.18점 표준편차는 2.145이다. 종속변수의 세 하위항목의 평균값은 가족신뢰지수가 가장 크고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표준편차의 경우 평균과는 반대로 공공기관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가족신뢰지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신뢰지수가 평균값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외에 개인의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 요인을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개인이 갖는 주관적 인식의 일종인 신뢰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기에 한 개인이 지닌 기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신뢰수준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을 감안하여 통제변수 선정에 고려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의 대표적 결정요인으로서 성별, 혼인상태, 연령 등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포함한 것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혼인상태, 연령대, 수입, 학력, 종교, 기부경험, 모임참여경험)과 심리적 요인(행복도, 삶의 만족도, 시민 자부심, 주관적 계층인식, 계층이동 가능성)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42,687	0.52	0.500	0	1
	혼인상태	42,687	0.77	0.423	0	1
	연령	42,687	4.27	15.152	1	6
	수입	42,687	4.55	1.461	1	6
	학력	42,687	4.72	1.247	1	7
	종교	42,687	0.45	0.498	0	1
	기부경험	42,687	0.40	0.489	0	1
	모임참여경험	42,687	0.83	0.378	0	1
심리적 요인	행복도	42,687	6.99	1.202	0.2	10
	삶의만족도	42,687	7.15	1.600	0	10
	시민자부심	42,687	6.95	1.470	0	10
	주관적계층인식	42,687	6.20	1.324	1	10
	계층이동가능성	42,687	3.04	0.850	1	5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포함되는 각 통제변수의 경우 명목척도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평균, 최소값, 최대값의 각 수치 의미는 크지는 않지만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응답에 참여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파악하는 것에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성별’의 경우 평균이 0.52로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남성(=0)보다는 여성(=1)의 구성비율이 조금 더 높다. 실제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표본을 구성할 때 서울시의 인구 구성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매년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혼인상태’의 평균은 0.77로 미혼(=0, 동거 포함)

보다 기혼(=1, 이혼·별거·사별 포함)의 비율이 높다. 셋째, ‘연령’의 평균은 42.65로 40대가 응답자 평균에 해당하며 40대 이상의 비율이 30대 이하보다 많다. 넷째, ‘학력’의 평균은 4.72로 응답자의 최종학력 평균은 고등학교~전문대학 사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종교’와 ‘기부경험’의 평균은 각각 0.45, 0.40으로 ‘없음(=0)’으로 응답한 비율이 ‘있음(=1)’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임참여경험’의 평균은 0.83으로 ‘없음(=0)’보다 ‘있음(=1)’ 응답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통제변수 중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행복도’의 경우 응답의 평균이 6.99점으로 나타났다. 행복도는 서울시 주민이 자신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변인과의 관계, 가정생활, 학교생활 각각에 대한 행복 수준을 응답한 결과를 평균 낸 값으로, 이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행복 정도가 보통(5점)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와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하 ‘시민자부심’)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이 각각 7.15점, 6.95점으로 보통(5점)보다 높은 ‘중상’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중 ‘주관적 계층 인식’은 6.20점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가 사회,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중간’(5-6점)이상의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인 행복도, 삶의 만족도, 시민자부심, 주관적 계층인식이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서울특별시의 주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체가 기타 시·도에 거주 중인 국민들과 비교할 때 교육 여건, 문화 및 교통 등 환경적 혜택과 만족,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인 것이 반영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정영아, 2017).

한편 서울특별시 주민이 인식하는 ‘계층이동 가능성’의 평균은 3.04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가능성에 대해 향상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자는 29.7%, ‘낮다’는 응답자는 25.3%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인

식이 계층이동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낮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현대경제연구원, 2016)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추측한 바와 같이 기타 시·도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특별시 시민들의 소득, 학력 등의 수준이 높고, 직장 여건, 문화·교육 등 접근성 보장이 높은 수준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 서울서베이 보고서(17년 기준)」에 따르면 계층이동 가능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직업별로는 관리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60세 이상, 중학교 이하, 블루칼라 직업군에서는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응답자 유형별 측정결과

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신뢰지수

[표 6] 응답자 유형별 신뢰지수

(단위: 점)

구분		종합신뢰지수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 신뢰지수
전체		6.43	8.65	5.47	5.18
성별	남성	6.44	8.67	5.47	5.18
	여성	6.43	8.63	5.47	5.18
연령별	10대	6.50	8.77	5.47	5.25
	20대	6.40	8.71	5.43	5.06
	30대	6.42	8.75	5.35	5.16
	40대	6.40	8.65	5.44	5.13
	50대	6.45	8.58	5.54	5.22
	60대 이상	6.47	8.56	5.58	5.27
학력별	중학교 이하	6.42	8.50	5.49	5.27
	고졸 이하	6.43	8.57	5.53	5.19
	대졸 이하	6.44	8.73	5.44	5.15
	대학원 이상	6.45	9.02	5.16	5.17

※ 2018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7년 기준) p.189의 표 재구성

응답자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신뢰지수는 [표 6]과 같다. 신뢰지수는 0점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상태, 10점이 가장 신뢰하는 상태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신뢰지수는 6.43점이다. 이는 보통으로 신뢰하는 상태(5점)보다는 평균적인 신뢰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가족신뢰지수, 이웃신뢰지수, 공공기관신뢰지수는 각각 8.65점, 5.47점, 5.18점이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종합신뢰지수와 하위의 세 가지 신뢰지수 모두 남성과 여성의 신뢰지수가 같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종합신뢰지수와 가족신뢰지수의 경우 10대의 신뢰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신뢰지수와 공공기관신뢰지수에서는 60대 이상의 신뢰수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연령별 특성에 따른 신뢰지수는 모든 종류의 지수에서 10대에서 20대로 가면서 신뢰지수가 하락하고, 5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가면서 신뢰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연령층에서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학력별로 볼 때 종합신뢰지수와 가족신뢰지수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해당 신뢰지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웃신뢰지수는 고졸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이상의 집단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신뢰지수에서는 중학교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지수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 대졸 집단과 비교할 때 다소 높아진 수치를 보인다.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응답자 유형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 회)

구분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경험	비경험	환경 보전	사회적 약자	문화 예술	재난 재해	자녀 교육	국제 사회
전체		12.9	87.1	3.81	4.40	4.05	2.10	3.66	1.98
성별	남성	11.7	88.3	4.02	4.94	3.91	2.16	3.60	2.15
	여성	14.0	86.0	3.61	3.97	4.16	2.04	3.69	1.80
연령별	10대	39.2	60.8	3.87	3.03	2.97	2.24	4.14	1.48
	20대	15.2	84.8	3.03	3.23	3.22	2.12	3.10	1.64
	30대	10.9	89.1	2.60	3.30	3.44	1.57	3.18	1.37
	40대	13.0	87.0	3.11	4.56	6.77	1.94	3.42	3.53
	50대	10.6	89.4	3.52	4.62	3.78	2.49	3.78	2.31
	60대이상	7.7	92.3	5.83	7.44	6.79	2.45	8.76	1.76
학력별	중졸이하	7.8	92.2	5.69	8.28	3.21	2.41	6.70	1.44
	고졸이하	12.8	87.2	3.91	4.40	3.91	2.22	4.13	1.64
	대졸이하	13.7	86.3	3.21	3.80	3.98	2.04	3.33	1.97
	대학원	23.9	76.1	3.44	4.47	6.19	1.99	3.60	2.74

※ 2018년 도시정착지표조사 보고서(2017년 기준) p.149의 표 재구성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9%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 87.1%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회적약자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가장 활발했다고 볼 수 있고, 국제사회 분야의 활동이 가장 낮았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응답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분야별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사회적약자 분야에서 4.94회로 참여횟수가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4.16회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39.2%로 가장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7.7%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10대의 주요 참여 분야는 환경보전 분야와 사회적약자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주로 교육과정에서 의무적 혹은 상위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 참여가 주된 양상을 이루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0대와 6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6~15.2%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은 참여 경험을 보였고 중졸 이하가 가장 낮은 참여를 보여, 위 결과에 한정하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 이상의 집단은 23.9%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두 번째로 높은 참여 집단인 대졸의 경우 13.7%인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는 학력과 자원봉사가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

1.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각 신뢰지수와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횟수, 그리고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각각의 신뢰지수마다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독립변수를 제외한 설명변수인 통제변수 역시 각각의 신뢰지수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인 심리적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수인 종합신뢰지수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제사회 분야를 제외한 각 분야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29(p<0.01)$, 사회적약자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15(p<0.01)$, 문화예술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30(p<0.01)$, 재난재해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20(p<0.01)$, 자녀교육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12(p<0.01)$ 이다. 국제사회 분야는 $r=.000$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면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 자녀교육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가 높을수록 종합신뢰지수가 높아지는 관계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가족신뢰지수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난재해 분야를 제외한 각 분야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39(p<0.01)$, 사회적약자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33(p<0.01)$, 문화예술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25(p<0.01)$, 자녀교육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26(p<0.01)$, 국제사회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10(p<0.01)$ 이다. 재난재해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07$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가족신뢰지수가 높아지는 관계가 있다.

이웃신뢰지수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보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14(p<0.01)$ 문화예술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23(p<0.01)$, 재난재해 분야

의 상관계수 값은 $r=.025(p<0.01)$ 이다. 한편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각각 $r=.008$, $r=.005$, $r=-.004$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웃신뢰지수와 자원봉사활동 각 참여 분야의 상관관계 분석을 종합하면 환경보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높아질수록 이웃신뢰지수가 높아지는 관계가 있다.

공공기관신뢰지수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보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20(p<0.01)$, 문화예술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21(p<0.01)$, 재난재해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r=.011(p<0.01)$ 이다. 반면 사회적 약자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상관계수 값은 각각 $r=.001$, $r=.005$, $r=-.003$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분야 중 환경보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의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공공기관신뢰지수도 높아지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명변수들 중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은 $r=0.562(p<0.01)$ 으로 상관계수가 0.6이상인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상관계수가 0.6이상의 값을 보인다면 해당 연구는 설명변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문제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설명변수에서 분산팽창지수의 값이 10 이하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분산팽창지수(VIF)

		종속변수			
		종합 신뢰지수	가족 신뢰지수	이웃 신뢰지수	공공기관 신뢰지수
독립변수	환경보전분야	1.056	1.056	1.056	1.056
	사회적약자분야	1.053	1.053	1.053	1.053
	문화예술분야	1.045	1.045	1.045	1.045
	재난재해분야	1.046	1.045	1.046	1.046
	자녀교육분야	1.028	1.028	1.028	1.028
	국제사회분야	1.032	1.032	1.032	1.032
통제변수	성별	1.043	1.042	1.043	1.043
	혼인상태	1.003	1.003	1.003	1.003
	연령	1.067	1.055	1.067	1.067
	수입	1.321	1.319	1.321	1.321
	학력	1.321	1.321	1.321	1.321
	종교	1.034	1.034	1.034	1.034
	기부경험	1.163	1.163	1.163	1.163
	모임참여경험	1.099	1.098	1.099	1.099
	행복도	1.681	1.681	1.681	1.681
	삶의 만족도	1.739	1.739	1.739	1.739
	시민자부심	1.128	1.128	1.128	1.128
	주관적계층의식	1.549	1.549	1.549	1.549
	계층이동가능성	1.104	1.104	1.104	1.104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가 개인의 신뢰수준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종합신뢰지수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R^2 (R Square)는 0.054로 서울특별시 시민의 종합신뢰지수에 관한 본 연구모형의 기초 설명력이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회귀분석 결과 (종합신뢰지수)

종속변수 : 종합신뢰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Robust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환경보전	0.063**	0.015	0.020	4.097	
	사회적약자	0.022	0.016	0.007	1.431	
	문화예술	0.109**	0.024	0.022	4.486	
	재난재해	0.084*	0.042	0.010	1.994	
	자녀교육	0.028	0.022	0.006	1.302	
	국제사회	-0.107	0.086	-0.006	-1.252	
통제 변수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0.014	0.014	-0.005	-1.010
		혼인상태	0.037*	0.016	0.011	2.348
		연령	0.001**	0.000	0.013	2.751
		수입	0.004	0.005	0.004	0.810
		학력	-0.048**	0.006	-0.042	-7.827
		종교	0.101**	0.013	0.036	7.488
		기부경험	-0.072**	0.015	-0.025	-4.916
		모임참여경험	-0.110**	0.018	-0.030	-5.979
	심리적 요인	행복도	0.168**	0.007	0.144	23.561
		삶의 만족도	0.087**	0.005	0.099	15.928
		시민자부심	0.043**	0.005	0.045	9.082
		주관적계층의식	-0.065**	0.006	-0.062	-10.503
		계층이동가능성	0.122**	0.008	0.074	14.885
		(상수)	4.382	0.107		40.886
관측치		42,687				
R ²		0.054				
F 값		127.100 (.000)				
주1: **p<0.01, *p<0.05						
주2: 더미변수 성별(=남성), 혼인상태(=미혼), 종교(=없다), 기부경험(=없음), 모임참여경험(=없음)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는 분야에 따라 차별적으로 종합신뢰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에 따라 개인의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종합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는 환경보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 세 가지 분야이며,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

회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즉 환경보전, 문화예술, 재난재해 분야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종합신뢰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 간 영향력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문화예술 분야($\beta=0.022$), 환경보전 분야($\beta=0.020$), 재난재해 분야($\beta=0.010$)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을 분석하면 성별과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종합신뢰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주민이 갖는 신뢰수준에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인 심리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 개인의 행복도·삶의 만족도·계층이동 가능성·시민 자부심·혼인상태가 기혼일수록·연령이 높을수록 종합신뢰지수는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종합신뢰지수에 가장 큰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은 심리적 요인 중 행복도($\beta=0.144$)이며, 삶의 만족도($\beta=0.099$), 계층이동 가능성($\beta=0.074$), 시민 자부심($\beta=0.045$), 혼인상태($\beta=0.011$)가 뒤를 따른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설문자료를 이용해 신뢰 형성에 관해 미시적으로 접근한 김우철(2014)의 연구에서 행복감, 삶의 대한 만족과 같은 변수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함을 입증한 결과와 일치한다.

통제변수 중 종합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관적 계층인식, 학력, 모임참여경험, 기부경험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성별과 수입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의 영향과 관련하여 남성의 신뢰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유재원, 2000)와 남성보다는 여성의 신뢰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박희봉 외, 2003)가 혼재하는데 본 연구에서 종합신뢰지수는 성별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남녀 차이는 없고, 소득수준별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Putnam(1993)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단체 활동이 사회적 신뢰를 증진할 가능성을 주목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모임참여 경험이 종합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서울시 주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환경보전 분야, 재난재해 분야일수록 종합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문화예술, 환경보전, 재난재해 순서대로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다.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는 종합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행복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을수록,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은 낮을수록 종합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일 때, 종교가 있을 때, 기부 경험과 모임참여 경험은 없을 때 종합신뢰지수가 더 높았다. 반면 성별과 수입은 종합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종합신뢰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의 결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종합신뢰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가설1>을 채택한다.

2) 하위 신뢰지수 분석결과

(1) 가족신뢰지수 분석결과

하위 신뢰지수 중 가족신뢰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R^2 (R Square)는 0.030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의 가족신뢰지수에 관한 기초 설명력이 3.0%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회귀분석 결과 (가족신뢰지수)

종속변수 : 가족신뢰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Robust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환경보전	0.078**	0.015	0.026	5.249	
	사회적약자	0.048**	0.015	0.016	3.180	
	문화예술	0.039	0.023	0.008	1.677	
	재난재해	-0.074	0.041	-0.009	-1.837	
	자녀교육	0.059**	0.021	0.014	2.844	
	국제사회	0.026	0.083	0.001	0.305	
통제 변수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0.028*	0.013	-0.011	-2.171
		혼인상태	0.045**	0.015	0.014	3.005
		연령	-0.002**	0.000	-0.020	-3.977
		수입	0.047**	0.005	0.052	9.455
		학력	0.026**	0.006	0.025	4.493
		종교	0.023	0.013	0.008	1.742
		기부경험	0.155**	0.014	0.057	11.050
		모임참여경험	-0.110**	0.018	-0.031	-6.245
	심리적 요인	행복도	0.133**	0.007	0.120	19.454
		삶의 만족도	0.003	0.005	0.004	0.593
		시민자부심	-0.028**	0.005	-0.030	-6.023
		주관적계층의식	-0.064**	0.006	-0.064	-10.718
		계층이동가능성	0.062**	0.008	0.040	7.890
		(상수)	7.636	0.103		74.090
관측치		42,687				
R ²		0.030				
F 값		69.030 (.000)				
주1: **p<0.01, *p<0.05						
주2: 더미변수 성별(=남성), 혼인상태(=미혼), 종교(=없다), 기부경험(=없음), 모임참여경험(=없음)						

종속변수가 가족신뢰지수인 경우에도 종합신뢰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가 갖는 영향력이 참여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는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이며,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환경보전 분야($\beta=0.026$), 사회적약자 분야($\beta=0.016$), 자녀교육 분야($\beta=0.014$)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횃수가 높을수록 가족신뢰지수는 높아진다.

개인의 가족에 대한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각 참여 분야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보전 분야의 활동이란 마을청소, 쓰레기 줍기 등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로 이는 일상적인 동시에 효과가 즉각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 참여자가 자신의 기여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만족과 행복 또한 즉각적이며 이것이 개인의 가장 기초적인 환경인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신뢰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사회적약자 분야의 활동은 복지시설, 병원, 야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봉사의 상대방인 수혜자는 봉사활동 참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많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참여 과정 중에 개인이 자신의 선천적 환경인 가정에 대한 감사와 만족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점에서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자녀교육 분야의 활동은 자녀의 교육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교통지도, 급식보조 등이 있다. 부모가 자녀의 가정 외 교육환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해당 분야의 봉사활동 참여 이후 부모와 자녀 모두 가정에 대한 애착이 높아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통제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면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종교의 유무, 심리적 요인 중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개인이 갖는 가족에 대한 신뢰 수준을 지수로 표현한 가족신뢰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신뢰에 영향력을 보인 것과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박희봉 외, 2003; 이재혁, 2006)이나 영향력의 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의 가족신뢰지수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행복도($\beta=0.120$), 기부경험($\beta=0.057$), 수입($\beta=0.052$), 계층이동 가능성($\beta=0.040$), 학력($\beta=0.025$), 혼인상태($\beta=0.01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인 삶의 행복도가 높은 서울시 주민일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인을 경험한 시민이 가족에 대해 더욱 강한 신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가족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결혼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계층인식($\beta=-0.064$), 모임참여경험($\beta=-0.031$), 시민자부심($\beta=-0.030$), 연령($\beta=-0.020$), 성별($\beta=-0.011$) 순으로 가족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박희봉 외(2003)의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신뢰를 보인 것과 일치하나, 연령의 영향력은 반대로 나타났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지만 각 요인의 영향력은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가 공간적·시간적 배경에 따라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는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더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이도록 하는 선순환적이고 쌍방향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 Putnam(1993), Brehm & Rahn(1997)의 견해와 일치한다.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일 때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가족신뢰지수가 높았으며,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의 순서대로 신뢰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크다. 반면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는 가족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은 낮을수록, 시민자부심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신뢰지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일 때, 기부경험이 있을 때, 모임참여경험은 없을 때 가족신뢰지수가 더 높았다. 종교와 삶의 만족도는 가족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종속변수를 하위 신뢰지수인 가족신뢰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의 결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가족’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가설2>를 채택한다.

(2) 이웃신뢰지수 분석결과

하위 신뢰지수 중 이웃신뢰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R²(R Square)는 0.043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의 이웃신뢰지수에 관한 본 연구모형의 기초 설명력이 4.3%인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1]와 같다.

[표 11] 회귀분석 결과 (이웃신뢰지수)

종속변수 : 이웃신뢰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Robust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환경보전	0.025	0.023	0.005	1.084	
	사회적약자	-0.013	0.024	-0.003	-0.548	
	문화예술	0.119**	0.037	0.016	3.225	
	재난재해	0.234**	0.064	0.018	3.675	
	자녀교육	-0.004	0.032	-0.001	-0.134	
	국제사회	-0.190	0.129	-0.007	-1.470	
통제 변수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0.003	0.020	0.001	0.127
		혼인상태	0.029	0.024	0.006	1.214
		연령	0.001	0.001	0.008	1.695
		수입	-0.035**	0.008	-0.024	-4.447
		학력	-0.102**	0.009	-0.060	-11.065
		종교	0.144**	0.020	0.034	7.092
		기부경험	-0.041	0.022	-0.009	-1.849
	모임참여경험	0.063*	0.028	0.011	2.281	
	심리적 요인	행복도	0.193**	0.011	0.109	17.931
		삶의 만족도	0.084**	0.008	0.064	10.285
		시민자부심	0.090**	0.007	0.062	12.500
		주관적계층의식	0.009	0.009	0.005	0.917
		계층이동가능성	0.268**	0.012	0.108	21.758
	(상수)		2.352	0.162		14.553
관측치		42,687				
R ²		0.054				

F 값	128.471 (.000)
주1: **p<0.01, *p<0.05	
주2: 더미변수 성별(=남성), 혼인상태(=미혼), 종교(=없다), 기부경험(=없음), 모임참여경험(=없음)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개인의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을 표현한 이웃신뢰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와 재난재해 분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갖고, 나머지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이웃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 분야와 재난재해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이웃신뢰지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문화예술 분야($\beta=0.016$)에서 보다 재난재해 분야($\beta=0.018$)에서 크다.

분야별로 이웃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위 결과 역시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혹은 안내, 재능기부 등 수혜자인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상대방을 위한 자신의 직접적인 기여를 체감하기에 쉬운 특징이 있다. 또한 재난재해 분야의 활동은 위기상황에서 이웃과 위기 극복이라는 명료한 목표를 공유하며 협동을 필요로 한다. 즉 문화예술 분야와 재난재해 분야의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접촉하며 이 과정에서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신뢰에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 수입, 학력, 종교, 모임참여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고,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제외한 행복도, 삶의 만족도, 시민자부심, 계층이동 가능성이 이웃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신뢰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은 행복도($\beta=0.109$), 계층이동가능성($\beta=0.108$), 삶의 만족도($\beta=0.064$), 시민 자부심($\beta=0.062$), 종교($\beta=0.034$), 모임참여경험($\beta=0.011$)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반면 수입($\beta=-0.024$), 기부경험($\beta=-0.009$)이 높은 수준일수록 이웃신뢰지수는 감소하는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이웃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재산 증식에 관심을 갖는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 박탈감 및 경쟁심리가 강화된 것이 이웃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 집값 급등과 주택이 주거의 목적보다 투기수단의 성격을 갖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경험을 통해 얻은 실망감이 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고 기부 방법 및 채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서울특별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일 경우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이웃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영향력이 재난재해 분야의 영향력보다 크다.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는 이웃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도가 높을수록, 계층이동가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민자부심이 높을수록 종교와 모임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이웃신뢰지수는 높게 나타나고, 수입이 낮을수록, 기부경험이 없을 때 이웃신뢰지수가 더 높다.

종속변수를 하위 신뢰지수인 이웃신뢰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이웃’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을 채택한다.

(3) 공공기관신뢰지수 분석결과

하위 신뢰지수 중 공공기관신뢰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R^2 (R Square)는 0.043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뢰 수준을 나타낸 본 연구모형의 공공기관신뢰지수에 관한 기초 설명력은 4.3%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2]과 같다.

[표 12] 회귀분석 결과 (공공기관신뢰지수)

종속변수 : 공공기관신뢰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Robust 표준오차	β		
독립변수	환경보전	0.087**	0.024	0.018	3.649	
	사회적약자	0.032	0.024	0.007	1.340	
	문화예술	0.170**	0.038	0.022	4.544	
	재난재해	0.093	0.065	0.007	1.437	
	자녀교육	0.030	0.033	0.004	0.895	
	국제사회	-0.157	0.132	-0.006	-1.193	
통제 변수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0.015	0.021	-0.004	-0.738
		혼인상태	0.036	0.024	0.007	1.513
		연령	0.004**	0.001	0.030	6.196
		수입	0.000	0.008	0.000	0.028
		학력	-0.068**	0.009	-0.039	-7.236
		종교	0.136**	0.021	0.032	6.570
		기부경험	-0.329**	0.022	-0.075	-14.698
	모임참여경험	-0.282**	0.028	-0.050	-10.003	
	심리적 요인	행복도	0.178**	0.011	0.100	16.231
		삶의 만족도	0.173**	0.008	0.129	20.633
		시민자부심	0.068**	0.007	0.046	9.235
		주관적계층의식	-0.140**	0.010	-0.087	-14.699
		계층이동가능성	0.035**	0.013	0.014	2.776
	(상수)		3.159	0.165		19.180
관측치		42,687				
R ²		0.043				
F 값		102.032 (.000)				
주1: **p<0.01, *p<0.05						
주2: 더미변수 성별(=남성), 혼인상태(=미혼), 종교(=없다), 기부경험(=없음), 모임참여경험(=없음)						

종속변수가 하위 신뢰지수인 공공기관신뢰지수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가 갖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참여분야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환경보전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만 공공기관신뢰지수에 정(+)의 영향력을 갖고, 사회적약

자 분야, 재난재해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도출되지 않았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문화예술 분야($\beta=0.022$)에서 환경보전 분야($\beta=0.018$)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는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을 위해 교육, 안내, 재능기부 등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환경보전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은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및 특성과 중복된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 봉사자가 행정수단으로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가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연령, 학력, 종교, 기부경험, 모임참여경험이 있고, 심리적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수준에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인 심리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 공공기관신뢰지수에 가장 큰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삶의 만족도($\beta=0.129$)와 행복도($\beta=0.100$)이며, 이어서 시민 자부심($\beta=0.046$), 종교($\beta=0.032$), 연령($\beta=0.030$), 계층이동 가능성($\beta=0.014$)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변수 중 주관적 계층인식($\beta=-0.087$), 기부경험($\beta=-0.075$), 모임참여경험($\beta=-0.050$), 학력($\beta=-0.039$)순으로 공공기관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경험과 모임참여경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은 신뢰구축을 통해 쌍방향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Putnam, 1993; Brehm & Rahn, 1997). 또한 사회활동을 기부와 자선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회활동의 참여와 특히 종교의 영향을 긍정적인 Veenstra(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등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가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기부를

경험하는 과정이나 기관을 통해 실망감을 느낀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기부에 관심을 갖는 이타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타인의 현실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부족한 행정 현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학력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은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모임참여를 통해 부정적 사회 이슈를 공유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신뢰를 낮추는 요인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환경보전 분야일 경우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공공기관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문화예술 분야가 환경보전 분야보다 공공기관신뢰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반면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 재난재해 분야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기부경험과 모임참여경험이 없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을수록, 시민 자부심이 높을수록,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인식은 낮을수록 공공기관신뢰지수는 더 높다.

종속변수를 하위 신뢰지수인 공공기관신뢰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설 4>를 택한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신뢰간의 정(+)의 상관관계는 공공선을 지향하는 ‘다원주의적 시민 결사체(pluralistic civic associ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결사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가 공적이고 사회적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사회자본이론에 따르면 신뢰로 인한 혜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지며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이 신뢰의 증대를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서울특별시 시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과 신뢰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각 연구마다 응답자들의 주된 참여 분야의 분포가 다를 수 있다는 관심에서 출발하여 참여분야에 따라 신뢰에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신뢰의 개념은 응답자마다 생각하는 대상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상대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뢰를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 및 신뢰 증진 정책을 수립할 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신뢰의 종류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다르다면, 각 신뢰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효율적인 수단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신뢰대상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신뢰지수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환경보전 분야, 재난재해 분야일 때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종합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문화예술, 환경보전, 재난재해 순서대로 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신뢰지수의 경우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일 때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가족신뢰지수가 높았으며,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의 순서대로 신뢰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크다.

셋째, 이웃신뢰지수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재난재해 분야일 경우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이웃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영향력이 재난재해 분야의 영향력보다 크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환경보전 분야일 경우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공공기관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문화예술 분야가 환경보전 분야보다 공공기관신뢰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서울특별시 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가 각각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상별로 구분한 신뢰지수마다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별로 각 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 자원봉사활동을 참여분야별로 구분하였고 동시에 독립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뢰를 가족, 이웃, 공공기관으로 대상별로 구분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하위의 신뢰지수로 포괄할 수 있는 종합신뢰지수를 도출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신뢰대상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봉사활동 분야가 다르므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으로 구분한 신뢰의 종류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다르다면, 각각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하는 효율적인 접근법 또한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예컨대 본 연구의 결과 중 공공기관신뢰지수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 환경보전 분야일 경우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공공기관신뢰지수가 높았으며, 문화예술 분야가 환경보전 분야보다 공공기관신뢰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 국제사회 분야, 재난재해 분야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저신뢰사회’의 오명을 벗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정부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한다면 문화예술 분야, 환경보전 분야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것이 신뢰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일상적 자원봉사의 참여 접근성을 향상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목적에 따라 강조할 분야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상적 자원봉사로 패러다임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 내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화 효과 및 세대간 전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연, 지연 등에 기반을 둔 특정적 대인 신뢰는 정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뢰 간의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김솔비, 2015)를 참고할 때 가정에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특정적 대인 신뢰인 가족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출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족신뢰지수에는 환경보전 분야, 사회적약자 분야, 자녀교육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할 때 위 분야의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설명변수 중 심리적 요인인 시민의 행복도와 계층이동 가능성은 모든 신뢰지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행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신뢰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해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서 긍정적인 기대가 있을 때 신뢰의 회복 및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폐쇄적인 계층이동으로 시민이 절망감을 받아들인다면 신뢰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민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보장할 수 있을 때 신뢰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가 시민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정책적 관점에서 신뢰의 증진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자 자원봉사활동 분야별로 신뢰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고, 각각의 신뢰를 대상별로 구체화하여 분석했다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고, 독립변수 외의 설명변수에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요인을 포함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 외에도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신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2 와 β 값이 크지 않았던 이유 또한 본 연구가 설명변수를 설정할 때 개인적 요인에만 치우친 편이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여 통제변수를 보완한 뒤 보다 정확한 신뢰에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타 시·도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 학력, 교통 및 교육 여건 등에서 우위에 있고 따라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2017년이라는 단일시점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신뢰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경우 정권의 교체나, 정치적 이슈,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도 등에 따라서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최고의 신기록을 보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 신뢰의 대상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공공기관신뢰지수와 관련하여 개념상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단순히 제도적 신뢰 혹은 정부신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신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주로 정부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범위가 일정하지 않고 다수 기관이나 행위자를 포괄한 복합개념으로 구성한다(김병섭·강혜진, 2015). 행정안전부의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사회기관을 대통령,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원, 국회 등으로 구체화하였는데 기관별로 신뢰도에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단순히 ‘공공기관’이라는 신뢰대상은 응답자에 따라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에 신뢰도 조사의 부정확성을 야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민성, (2015).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여진·박천오, (2003). 공공기관 조직구성원간의 신뢰와 지식공유. 「한국행정연구」, 12: 91-122.
- 고원혁, (2016). 제주지역 경찰공직자의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진, (2012). 기업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섭·강혜진, (2015). 신뢰가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권교체 및 신뢰대상에 따른 방향성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김성준, (2001). 지방자치와 자원봉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 161-178.
- 김솔비, (2018).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영준, (2016).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완수, (2018).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익균·주익수·이용환·최광신·김재원·박옥신·박철훈·문황진, (2013). 『자원봉사론』, 정민사.
- 김창석·최수일, (201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 만족도간의 영향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12(4): 315-326.
- 김태룡·안희정, (2009).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분석: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197-218.

- 김태홍·김난주·권태희, (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2): 83-105.
- 류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그린.
- 박재희, (201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춘희, (2015).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및 참여지속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태규·박수범·정영석, (2003).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재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1-20.
- 서울특별시, (2018a). 「2017 서울서베이」.
- 서울특별시, (2018b). 「2017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서울연구원.
- 송건섭, (2009).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이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99-121.
- 신윤창, (2008).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연구 : 한국과 외국의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123-148.
- 안소영, (2017).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 안병일, (2009). 청소년단체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은서, (2015). 대학생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과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형성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보, 9(3): 23-43.
- 원숙연, (2002). 신뢰의 개념적·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0(3): 63-85.
- 이동원·조성남·원영희, (1998).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 남성 예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표문 요

- 약집」 19989. 250-259.
- 이승중, (2003).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이재완, (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89-223.
- 이지은·강민성·이승중,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45호.
- 이형규, (2017).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 이희태, (201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69-89.
- 임혁백, (2000), 21세기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 심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Post-IMF Governance].
- 임혁백·장주영, (2010). 다원주의 정치론의 현대적 의의: “영국 다원주의”(English Pluralism) 국가론, 결사체 민주주의, 화이부동의 정치. 인산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 임혜숙·김윤재·이유섭·박남오·송노원, (2013). 「자원봉사전론」, 박영사.
- 정상호, (2006). 이익정치의 미래 :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 「NGO를 넘어서: 이익정치의 이론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한울아카데미.
- 정호영, (2003). 자원봉사 관리이론과 실무. 사회복지사협동사무소 포레스트.
- 정지훈, (2017).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휘일, (1991). 한국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민지, (2016). 거주지역의 소득다양성이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은숙, (2012).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수준과 기부, 자원봉사의 관계.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현외성, (2017). 「현대 자원봉사론」, 창지사.
- Bjørnskov, C. 2007. Determinants of generalized trust: Across-country comparison. *Public Choice* 130(1-2): 1-21.
- Brehm, J., and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pp. 999-1023.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95-S120.
- Fine, B. (2001). It ain't social and it ain't capital. *Research in Progress*(1), 11-15.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New York.
- Fukuyama, F. 1999.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 Fox, A. (1974). *Beyond Contract: Work, Power, and Trust Relations*. London: Faber and Faber.
- Gallagher, S. K. (1994). *Older People Giving care: Helping Family and Community*. Westport, CT: Auburn House.
- Hardin, R. (1998). Trust in government. *Trust and governance*, 1, 9-27.
- Herzog, A., Kahn, R., & Morgan, J.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y. *J. Gerontol.* 4, S129-S138.
- Lewicki, R. J. & Weigert, A (1985). Trust as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 967-985.
- Ostrom, E., & Walker, J. (2003). Trust and reciprocity:

- Interdisciplinary lessons for experimental research: Russell Sage Foundation.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04), 664-683.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and Schuster.
- _____.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37 - 174.
- Susan J. Ellis & Katherine H. Noyes (1990), *By the people: a history of Americans as volunteers*, Jossey-Bass Publishers.
- Veenstra, G. 2003. "Explicating Social Capital: Trust and Participation in the Civil Spac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7, pp. 547-573.
- Williamson, O. E. (1993). Calculativeness, Trust, and Economic Organiz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4: 453-502.
- William Mishler, Richard Rose (1997). Trust, distrust and skepticism: Popular evalu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post-communist societies. *Journal of Politics*, 59(2), 418-452.